



갤럭시 언팩 옥외광고가 게재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삼성전자

삼성전자, 7월초 갤럭시 언팩

3년만에 뉴욕에서 언팩 행사
Z플립·폴드7 등 공개 예정

삼성전자가 3년 만에 미국 뉴욕에서 하반기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Z 플립7’과 ‘갤럭시Z 폴드7’이 공개될 예정이다.

2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7월 초 뉴욕 현지에서 언팩 행사를 열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통상 삼성전자는 언팩 행사를 현지 시간 기준 수요일에 진행해 온 만큼, 행사 날짜는 현지시간 기준 수요일인 7월 2일 또는 9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삼성은 프랑스 파리에서 7월 10일(현지 시간) 수요일에 ‘갤럭시 언팩 2024’를 개최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뉴욕에서 하반기 언팩을 여는 것은 2022년 ‘Z 플드4·플립4’ 공개 이후 3년 만이다. 2023년에는 서울, 지난해에는 파리 등 주요 문화 도시에서 행사를 열었다. 올해 다시 뉴욕을 선택한 배경에는 북미 시장 공략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65%, 삼성전자는 18%로 집계됐다. 비록 1위와의 격차는 크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트랜

드를 주도하는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시장이다

이번 언팩에서는 Z플립7과 Z폴드7이 공개된다.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IT팁스터(정보유출자) 등에 따르면 두 제품 모두 전작보다 얇고 가벼워진 디자인에 성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Z플립7은 외부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베젤은 줄어들며, Z폴드7은 본체 두께가 1mm 이상 얇아지고 접히는 화면의 주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드웨어뿐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 기능도 업그레이드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폴더블폰에 AI 기능을 적용해 왔으며, 7시리즈에서는 접히는 형태에 최적화된 AI 경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Z 시리즈 외에도 갤럭시 워치8 시리즈를 비롯해 보급형 폴더블폰으로 불리는 ‘갤럭시Z 플립 FE’, 세 번 접히는 트리폴드폰 ‘G 폴드(가칭)’, 확장 현실(XR) 전용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의 등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들 제품은 연말 혹은 별도 행사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하반기 언팩 일정이나 신제품 발표 계획 등은 아직 공식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

근로자 5명 중 1명, 평균임금 200만원 이하

(8월)

보건·숙박업 등 저임금 비중 높아

국내 근로자 5명 중 1명은 월평균 임금 200만 원도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월 100만 원 이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컸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하반기 기준 국내 임금근로자 수는 전년대비 9만 6000명 증가한 221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수준별 구성비는 ▲100만 원 미만 9.6% ▲100만~200만 원 미만 10.4% ▲200만~300만 원 미만 31.6% ▲300만~400만 원 미만 22.0% ▲400만 원 이상 26.5%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비해 ▲100만 원 미만(9.2→9.6%) ▲300만~400만원(21.5→22.0%) ▲400만 원 이상(24.6→

26.5%)의 비중은 높아졌다. 또 ▲100~200만 원 미만(11.5→10.4%) ▲200만~300만 원(33.2→31.6%)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저임금도 올랐고 명목 임금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 구간의 비중이 늘어났다”면서도 “60대 이상 단시간 근로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100만 원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월 400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 비중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9.6%), 금융 및 보험업(49.0%), 정보통신업(48.5%), 제조업(37.3%), 건설업(34.2%) 등에서 컸다.

월 100만 원 이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8.4%), 숙박 및 음식점업(24.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8.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될 것”

》1면 ‘韓 경제 뒷걸음질…’서 계속

관세, 대선 등 불확실성 영향
한은, 하반기 수출경기 악화 분석
“올해 성장률, 계산 어려운 상황”

설비투자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투자가 위축돼 2.1% 역성장했다.

경제성장률을 이끌었던 수출도 둔화했다. 수출은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등이 줄어 1.1% 감소하고, 수입은 에너지(원유, 천연가스 등)를 중심으로 2.0% 감소했다.

◆韓 불확실성 ‘늘’… 1분기 성장률 기대 이하

이날 한국은행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0.2%)보다 0.4%포인트(p) 하락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1.5%)도 하향조정될 것이라고 분석

했다.

이 국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월 알루미늄과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통상 철강 수출의 경우 계약한 뒤 수출까지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관세 영향은 5~6월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부과한 관세가 2분기(4~6월) 수출경기 악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부문은 민간소비 개선이다.

이 국장은 “아직 전망을 말할 수 없지만, 2분기부터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10월부터 기준금리를 0.75%p 인하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선으로 인한 비영리단체의 소비 증가도 민간소비를 소폭 개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국장은 성장률 전망치가 얼마나 내려갈 지 묻는 질문에는 계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기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다가 이번에 보완 전망까지 낸 것은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며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에 따라 성장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 계산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 연차총회에서 CNBC와 만나 한국 경제의 핵심키워드 ‘불확실성’을 꼽았다.

이 총재는 “한국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며 “한국은 본질적으로 수출 중심 경제이기 때문에 이번 무역 긴장은 (한국경제에) 상당한 역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나의 건강루틴키우기

한화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3.0 무배당

먹는 것 하나부터 꼼꼼하게 신경 쓴다면
보험도 여성건강에 맞춰 더 섬세하게(특약)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시리즈로 배타적 사용권 17개 확보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 1년입니다. <http://www.hwgeneralins.com>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39216호(2024.12.26~2025.12.25)

채팅 상담하기

쉽고 편하게 바로 상담받기

1833-7667

한화손해보험